

기독교 상담에서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 연구

안 경 승*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기초를 찾아보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기독교적 인간관의 핵심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의 주제에 초점을 모았다. 이에 대한 신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기독교 상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논리적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두 주제가 돌봄의 현장에서 균형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 독특성 보다는 연계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칭의와 성화는 구원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믿음, 성령,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두 과정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성경 내에서 두 용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연구된다. 기독교 상담의 적용 과정은 각 사람의 특별한 상황과 문제로 인해 포괄적이기 보다는 개별적이고 성경의 다양한 약속과 명령이 개입된다. 하지만 칭의를 확인하며 성화를 지향하게 하고 성화를 연습하면서 칭의를 동력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허락되어진 절대적이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구원을 중심으로 삼은 칭의와 구원에 대한 진리의 확인과 깨달음은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실천 사역에서도 가능한 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중심단어: 칭의,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 기독교 상담, 구원

• 논문 투고일: 2015년 10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2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기독교 사역을 세우는 것을 마천루를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는 글을 접한 적이 있다.¹⁾ 건축가는 100여층 까지 올라가는 마천루의 하중을 견뎌 내기 위해 ‘파일(pile)’을 사용한다고 한다. 파일은 건물이 세워지는 지반의 단단한 바위를 뚫을 때 땅에 박는 강철 기둥으로 높은 건물 같은 경우 여러 파일을 지하 20층까지 박는다. 그렇게 하면 마천루의 엄청난 하중이 파일로 분산되어 건물의 균열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파일을 제대로 박지 않으면 결국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금전과 시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기독교 상담 사역 역시 같은 측면이 있다. 건물의 질과 내구성이 파일을 깊숙이 박는 기초 작업에 달려 있듯이, 기독교 상담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가 없으면 표면 위의 상담적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기독교 상담은 그 지반에 성경적 파일을 박아야 하고 그것도 깊숙이 박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성경이 설명하는 인간관, 그 중에서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성장해가는 인간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기독교 상담의 핵심적 주제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분의 십자가 상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두고 그로부터 세워지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특권이기도 하다. 논문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함께 이

1) Peter Scarzzero, *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목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서울: 두란노, 2015), 62-63.

주제에 근거한 기독교 상담이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기독교 상담 현장의 적용을 위해서 논리적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칭의와 성화의 독특성 보다는 연계성을 구체화한다. 칭의를 확인하며 성화를 지향하고, 성화를 연습하면서 칭의를 동력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허락되어진 절대적이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II. 펴는 글

1. 칭의와 성화

기독교 상담은 학자마다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간의 구원이 기독교 상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²⁾

-
- 2) 인간의 변화를 위한 기독교적 이해에서 구원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영적 생명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죄는 전제하고 논의의 초점을 구원에 집중한다. Jay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전동식 역, 『상담신학』 (서울: 기독교보출판사, 1990), 222;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210-212; David Powlison, “Biblical Counse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s. John F. MacArthur, J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58; Robert Cheong,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e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1), 155-157; Elyse M. Fitzpatrick & Dennis E. Johnson, *Counsel from the Cross* (Wheaton, IL.: Crossway, 2012), 37-53. 이와 관련된 국내의 논문으로는 성기림,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 상담과 신자의 성화에 대한 실천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1); 박은호, “성화를 중심으로 본 교회 내 상담사역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강은주, “기독교인의 성화의 삶을 위한 내적 치유 도구로서의 글쓰기 치료”,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2권 3호(2007): 49-82; 김수연, “기독교 상담에서의 이야기 해석”,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호(2007): 101-126가 있다.

구원을 중심으로 인간의 변화적 상황을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다. Adams는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속죄, 중생, 인간의 측면에서 조명하면 회개, 믿음, 그리고 구원의 객관적 요소(속죄, 칭의)와 주관적 요소(중생, 믿음)로 구분하였다.³⁾ 반면에 Collins는 구원을 회복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세분한다. 관계로부터 온 이미지인 화목, 법정으로부터 온 이미지인 칭의,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온 이미지인 구속이 그것이다.⁴⁾ 조금 더 확장적으로는 양자됨이나 사랑받음, 성화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서 칭의(Justification)는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을 말하는 것이다.⁵⁾ 반면에 성화(Sanctification)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신자의 성장 과정으로, 의롭게 된 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다.⁶⁾

1) 칭의와 성화의 연계성

교회 역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 연계성이 모호해질 때, 실제적인 삶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칭의는 강조되지만 성화가 간과될 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부실해 진다. 반면에 성화는 강조되지만 칭의가 든든하지 못할 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낳게 된다.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칭의와 성화를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주제의 독특하지만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3) Adams, 『상담신학』, 221.

4) Collins,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199-213.

5)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2nd ed.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04), 136.

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1938), 532.

첫째, 칭의와 성화는 구원이라는 공통 목적을 지향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철하는 종교개혁자 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하면서, 그가 성경의 핵심 되는 진리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다른 주제들을 질서 있게 서술했다고 파악한다.⁷⁾ Calvin이 제시하는 성경의 핵심이자 신앙의 목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거룩하게 됨을 입고 구원을 얻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⁸⁾ 구원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토대이고 기독교인의 모든 삶과 사역의 심장과도 같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구원은 구원 받았다는 단회적 사건(칭의: 의롭다 함을 받음)만이 아니고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성화: 거룩하게 됨),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영화롭게 됨)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⁹⁾ 즉 구원은 그리스도가 전가한 거룩함(칭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거룩함(성화)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Horton은 이 연관성을 “한 가지 일에 감각이 없다면 다른 일에 있어서도 역시 감각이 있을 수 없다”고 표현한다.¹⁰⁾

종교개혁자들은 시대적 특징 상 로마 가톨릭교회 중심과 인간의 공로 중심적 구원론에 반하여 칭의, 즉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Martin Luther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분명한 상태인 칭의를 강조하고 그 결과로 성화를 말한다.¹¹⁾ 성 아

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칼빈아카데미, 2011), 290.

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 신복운 · 이종성 · 한철하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II, 1. 2.

9) Michael S Horton,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윤석민 역,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303.

10) Horton,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268.

11) Gerhard O. Ford, “The Lutheran View,” in *Christian Spirituality*,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13. Ford는 루터의 신학적 입장에서 성화가 “단지 칭의에 익숙해지는 기술이다. 그것은 칭의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로서 Luther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모습이 완벽한 순종에 달려있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갈 3:11)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나아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갈 3:11; 하 2:4)는 말씀과 같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죄인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그 분께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모두 쏟아 부어졌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선언되었다.

이 점을 확신한 Luther에게 있어,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 각인하고 사는 것이다.¹²⁾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의로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칭의가 성화보다 강조되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성화와 칭의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다. “만일 행위와 사랑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며, 아직까지 복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바로 인식되지 못한 것이다.”¹³⁾

Calvin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일치성이 더욱 분명해 진다. Calvin은 『기독교 강요』를 구성하며 성화를 먼저 언급하고 칭의를 설명한다.¹⁴⁾ 박동일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의인이 소극적 삶의 태도를 변명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칼빈에게서 의인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12) 이러한 칭의의 연속적 성격은 Calvin에게도 강조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한 번만 가질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한다.” Calvin, 『기독교 강요』, III. 14.11.

13) Ford, “The Lutheran View,” 18.

14) Calvin은 믿음, 회개, 성화(III. 6-10) 후에 칭의(III. 11-16)와 선행과 자유를 설명한다.

안에 있는 한 실재요 한 은총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같이 받는 한 은총의 두 면으로 양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날마다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언 받고, 옛 아담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됨의 상호작용이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기독교 윤리의 원리를 결정한다.¹⁵⁾

둘째, 칭의와 성화는 이 둘 모두를 가능하게 하며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Walter Marshall은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나오는 거룩한 본성과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¹⁶⁾ 물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믿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거나, 인간의 믿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말씀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¹⁷⁾ 특히 우리는 성령의 중재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 아니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형성된다.¹⁸⁾ Horton 역시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설명한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행동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이며, 일단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칭의(의에 대한 단회적 선포)와 성화(의가 자라나는 점진적이고 더디며 고통스러운 과정)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한꺼번에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점진적인 과정 속에

15) 박동일, 『개혁교회의 구원론』 (서울: 동연, 2012), 33-34.

16) Walter Marshall, *The Gospel Mystery of Sanctification*, 장호준 역, 『성화의 신비』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95.

17) Calvin, 『기독교 강요』, III 11. 7; III. 11. 11.

18) Calvin, 『기독교 강요』, III. 11. 10.

서만 거룩하게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롭다는 선포와 의로움이 성장하는 과정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롬 8:30; 고전 1:30; 엡 2:8-10).¹⁹⁾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 역시 도우며, 자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비록 개인마다 그 진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이뤄지고 거룩함을 위한 갈망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보장된 역사인데, 죄를 극복하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힘을 더한다. 성령은 우리를 그 분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연합함에 대한 믿음이 죄를 극복하게 하는 핵심적 능력으로 작용한다.²⁰⁾ 우리에게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특권이 거룩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연합) 그분의 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고전 1:30)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위한’ 성화가 되실 수 있는 이유이다.”²¹⁾ Bryan Chapell 역시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인한 유익과 능력을 받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그토록 짐을 지우는 악을 우리가 극복하도록 하는 우리 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²²⁾

19) Horton,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267.

20) Bryan Chapell, *Holiness by Grace: Delighting in the Joy that is Our Strength* (Wheaton, IL.: Crossway, 2001), 50-51.

21) Sinclair B. Ferguson, “The Reformed View,” in *Christian Spirituality*,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50. Ferguson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롭고 풍성한 자원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Calvin의 글을 인용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Calvin, 『기독교 강요』, III. 16. 19.

22) Chapell, *Holiness by Grace*, 41.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칭의) 거룩해짐(성화)이라는 성령의 이중적 유익을 얻게 된다.²³⁾ 이러한 이중적 유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고전 6:11)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즉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 인해 의로움과 거룩함은 논리적 구별은 가능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셋째, 칭의와 성화는 성경 내에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용례로 볼 때,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바울서신에서 이 두 주제가 펼쳐지는 성경 구절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 후에, 김세윤은 ① 바울의 성화 언어의 사용법들은 칭의의 사용법들과 일치하며(롬 5:8-10, 8:32-34; 고전 1:6-9; 빌 1:10, 11, 2: 15), ② 칭의론이 암시되는 맥락에서 성화의 언어를 강조하여 쓰거나, 법정적 언어도 성화와 연결하여 쓰고 있다(데살로니가전서)고 분석한다.²⁴⁾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칭의의 언어와 성화의 언어를 동의어로 쓰며 구원의 세 단계(과거, 현재, 미래)의 전 과정에 공히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둘은 같은 실재를 말하는 다른 그림 언어들 (metaphors)”이라고 주장한다.²⁵⁾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칭의와 성화를 구분되는

23) Richard B. Gaffin, Jr.,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s. David W. Hall &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15), 253-256.

24)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4), 180-188. 성경신학자들에게 칭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이와 관련한 새 관점(New Perspective) 학파의 도전 때문이다. 이들의 전제는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로 보는 것이다. 즉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의인이라 칭함 받고 구원 받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법을 지키게 하신 언약적 율법주의의 종교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은 바울의 구원론적 칭의 교리의 의미를 축소시키게 되었다. 바울의 칭의론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기 위해 선교론적이고 교회론적 관점에서 고안된 임시방편적 교리라고 본 것이다.

25) 김세윤, 『칭의와 성화』, 180.

구원의 두 단계로 보기 보다는 성화가 칭의의 현 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²⁶⁾ 즉 칭의를 하나님 나라에로 진입함(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있음(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Eric L. Johnson 역시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칭의(*diakiaioō, diakaios, diakaiosunē*)와 성화(*hagiazō, hagiasmos, hagios*)와 관련된 언어군의 용례를 연구한 후,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저자들이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²⁷⁾ 칭의를 뜻하는 단어가 점진적 의를 의미하면서 사용될 뿐 아니라(롬 6:13-20; 빌 3:6; 딤후 2:22, 3:16; 딤후 2:22), 행위와 행실의 거룩함을 지칭할 때도(살전 2:10; 요일 3:12; 계 19:8) 사용된다. 특히 로 6:16-22에서 ‘윤리적 의’²⁸⁾의 발전을 묘사하면서 칭의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diakaiosunē*, 16, 18, 19, 20절) 그것을 “성화(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동일시한다(*hagiasmon*, 22절).

칭의와 성화의 조금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한 대안으로 Johnson은 화행이론(話行, Speech Act Theory)을 제시한다. 화행이론은 Kevin Vanhoozer가 일반 언어 철학이론에서 빌려온 성경 해석학의 한 방법론이다. 언어를 단순히 용어 해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²⁹⁾ Vanhoozer가 “인

26) 김세윤, 『칭의와 성화』, 192.

27) Eric L. Johnson, “Rewording the Justification/Sanctification Relation with Some Help from Speech Act Theory,”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 no.4(2011): 768.

28) Douglas J. Moo, *NICNT: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406.

29) Graeme Goldsworthy, *Gospel-Centered Hermeneutics*, 배종열 역, 『복음주의 해석학』 (서울: CLC, 2010), 254; Kevin Vanhoozer, “The Semantics of Biblical Literature,” in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s. D. A. Carson & John D. Woodbridge (Leicester: IVP, 1986), 53-104.

간의 언어는 그 사용자와 분리된 실존을 즐기는 자유롭게 떠도는 기호시스템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듯이,³⁰⁾ 언어가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과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발화(locutionary)는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수반적(illocutionary) 의도를 담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청자에게 확신을 주거나 설득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발화효과(perlocutionary)가 있게 된다.

이것을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회심의 순간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발화를 전달받고 깨닫게 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사 55:11).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발화수반적 의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청자인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이 점진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발화효과가 이뤄진다.

Johnson이 이런 관점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선언적 구원(Declarative Salvation)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Christiformative Salvation)을 제기한다.³¹⁾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발화수반인 선

30) Kevin Vanhoozer, *First Theology: God, Scripture & Hermeneutic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167.

31) Johnson 외에도 칭의와 성화를 연관된 용어로 통합하며 구분해 보려는 시도가 접근방법에 따라 독특하게 이뤄진다. 전통적으로 서신서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로 이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두 주제를 설명한다. 반면에 K. L. Onesti와 M. T. Brauch는 “선언되어진 의로움, 은사로서의 의로움, 신앙의 의로움, 그리고 순종의 의로움”으로 칭의 중심의 접근을 한다. John Murray는 이것을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한다. K. L. Onesti & M. T. Brauch, “Righteousness, Righteousness of God,”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G. F. Hawthorne, R. P. Martin & D. G. Reid(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3), 827–837; John Murray,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Collected Writing of John Murray: Select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vol. 2(Edinburgh: Banner of Truth, 1977), 277–284.

언적 구원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발화효과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 모두 하나의 발화의 다른 측면이다.”³²⁾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구원의 두 측면

하나님의 발화수반 —> 하나님의 발화효과적 의도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 성령에 의한 적절하고 실제적인 변화

선언적 구원	⇒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와의 연합 - 칭의: 용서와 외부적 의의 전가 - 성도, 결정적 성화 - 양자됨, 유산을 보장 - 화목 -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 - 몸 된 교회의 지체됨 - 사랑을 입은 자 -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의 도우심 - 의로움, 순수하고 깊어진 순종, 의로운 삶 - 거룩하게 되어감, 점진적 성화 -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태도에 따른 변화 -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 성품의 변화, 거룩한 습관 - 사랑하고 받는 능력의 증가 -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적 능력의 성장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사람으로 성장해 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회복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며 의롭고 거룩한 실제적 삶이 어떤 것인지 모델이 되어준다. 성화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강조하듯,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에 함께 동역하면서 직설법에 기초한 명령법의 내용을 반응해 갔다. 이것을 Jerry Bridges는 ‘의존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청교도는 의존적 책임의 개념을 이해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 부

32) Johnson, “Rewording the Justification/Sanctification Relation with Some Help from Speech Act Theory,” 783.

지런히 노력하지만, 또한 그들은 그들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한다.³³⁾

인간은 성화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활동적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하나님께 서는 거룩하게 하는 그 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 어드리고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 일하신다. “사랑 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 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롬 8:13; 벧후 3:14 참고).

더 나아가 성화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언급되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고통과 시련), 교회의 교제, 성례이다.³⁴⁾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실천적 사역으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의 큰 범주 속에서 칭의와 성화를 돕는 구체적 방법을 현장에서 찾아간다.

2. 칭의와 성화 중심적 기독교 상담

기독교의 돌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혼 돌봄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부재했다는 사실이다.³⁵⁾ 이 당시 자유주의적 신학에 근거한 목회상담학은 발흥하였으나, 1960년 전후 까지 상담적 접근을 시도하는 복음주의적 영혼 돌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명하게도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상담

33) Jerry Bridges, *The Transform Power of the Gospel*(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12), 107.

34) Ferguson, “The Reformed View,” 67–74.

35) Eric L. Johnson, “Reformational Counseling: A Middle Way,” *A Quarterly for Church Renewal* 13, no. 2(2004): 11.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성경적 상담이라고 불리는 돌봄 모델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강조점이 종교개혁의 핵심적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dams는 이 모델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이라는 책에서 구원론(두 장)과 성화론(다섯 장)을 설명한다.³⁶⁾ 칭의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이 기독교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관점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성화와 관련한 강조점은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는 것(엡 4:22-24)이 강조된다.

여기서는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며 접근하는 기독교 상담적 접근을 살펴본다. 칭의와 성화는 본질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실천적 사역의 내용 역시 칭의 중심적이지만 성화를 지향하고, 성화 중심적이지만 칭의가 재확인되는 것을 보게 된다.

1) 칭의 중심적 기독교 상담

비록 우리가 겪는 죄의 세력과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칭의는 변화를 위한 근원으로 작용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수용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어떤 상담과 돌봄의 상황에서도 칭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시지이다.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① 신자의 정체성(이로 말미암는 확신, 쉼, 위로, 안정 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②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으로 살 수 있으며(롬 8:33-34), ③ 하나님의 말씀에

36) Adams, 『상담신학』, 218-353.

따라 살게 하는 동기와 힘을 주며 새로운 태도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게 한다.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칭의를 확인하고 붙잡도록 도움을 주는 접근방식이 내담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³⁷⁾ 첫째, 자신의 성취나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자신의 성공으로 즐거움의 이유를 찾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교만하고 자신만만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울과 불안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확인하면서, 여러 상실과 실패로 인한 자기 비난, 죄책 그리고 수치의 아픔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실패의 순간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수치에 빠져들기도 한다. 자신이 수용 받는 다거나 실제로 수용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며 자괴감과 우울이 심해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듣고, 배우고, 신뢰하는 것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게 한다. 셋째, 칭의의 메시지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과 타인과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전한다. 매일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멋진 스펙과 이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바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변화를 가져온다. 자기 방어와 자기 방종의 노예 된 패턴에서

37) David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1,"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1(2013): 61.

겸손과 확신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³⁸⁾ Tim Keller는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그토록 허물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깊은 겸손과 깊은 확신을 동시에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으스대는 것과 훌쩍이는 것 모두를 잠식시킨다”라고 고백한다.³⁹⁾

Fitzpatrick와 Johnson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와 같이 우리를 정의내리며,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 선언적이고 복음 의무적 관점을 개입시켜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복음 중심적 상담(Gospel-centered counseling)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정의한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격려, 권고, 위로, 도움을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고 관계의 정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복음적 상담의 목적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복음의 대한 이해 속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흔쾌한 순종으로 반응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의 대답은 복음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핵심적 영향을 끼치는 칭의를 아우르는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 상담 사역에 통합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고 책임이기에

38) 이와 관련하여 김준수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거부 민감성에 대한 극복의 대안으로 개인의 신분적인 성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적용과 함께 신앙공동체 내에서 경험하는 복음을 제안하고 있다. 김준수, “거부민감성의 이해와 성경적인 대처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87-88.

39) Tim Keller, *The Reason for God: Belief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Dutton, 2008), 180-181.

40) Fitzpatrick & Johnson, *Counseling from the Cross*, 91.

깊이 연구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성화 중심적 기독교 상담

성화는 회심의 순간에 시작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진다. 성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된다. 첫째,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이 고전 1:2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행 20:32, 26:18)이라고 말했듯, 거룩은 이미 성취되었다. Murray 는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라고 설명한다.⁴¹⁾ 둘째,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분이 선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와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명해 간다. 그 과정이 느리게 보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⁴²⁾

기독교 상담의 목적은 성화의 목적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⁴³⁾ 타락이후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morphe)로 존재한다고 증거한다(빌 2:6). 즉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인간적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해 가면서 하나님의

41) Murray, “Definitive Sanctification,” 277–284.

42)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1,” 49.

43) 기독교 상담학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상담적 적용을 시도해 왔다. 근래에는 Mark R. McMinn이 하나님 형상의 기능적, 구조적, 관계적 차원에 따라 상담적 방법론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7), 21–54; *Sin and Grace*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92–102.

형상을 닮고 제자로 성숙해 간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신자가 변화해야할 모델로 그리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기를(*morphothe*)를 기원했고(갈 4:19), 빌립보서 3:10에서는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symmorphizomenos*)”으로, 로마서 12:2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metamorphousthe*)”으로 변화를 명령한다. 로마서 8:29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eikonos*)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확실성은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함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본받는 것(*summorphos*)은 예수께서 수립하고 그렇게 사셨던 “존재 방식”에 맞춰가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화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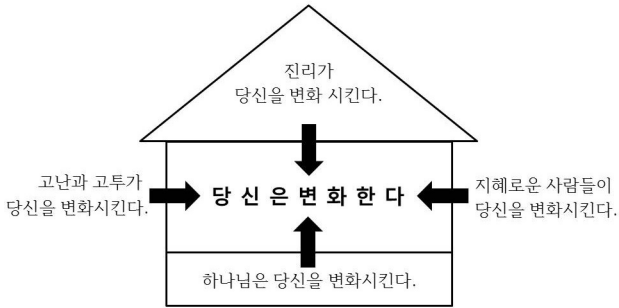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의 또 다른 표현이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정의 삶(*mortification*)과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소생의 삶(*vivification*)이다.⁴⁵⁾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9-10)라고 확인한다. 달리 말하면 한편 죄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온 전인이 매일 매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져 간다(고후 4:16).

기독교 상담은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우리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요소를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보는 시도를 한다. Powlison은 성화의 과정

44) Moo, *NICNT: The Epistle to the Romans*, 535.

45) Calvin, 『기독교 강요』, III. 1. 3.

에 상호 협력하며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⁴⁶⁾



〈그림 1〉 성화에 있어서 다섯 가지 요소

이 그림 안에 앞에서 설명한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며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성령과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가 진리의 말씀이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의 생각과 뜻”(히 4:12)을 분별하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는(시 36:9; 요 8:12; 요일 1:7) 능력을 가지고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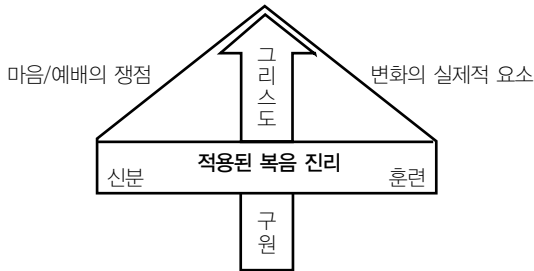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 우리는 공동체 내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 변화한다. 관계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46) David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2(2013): 46.

47) Fitzpatrick & Johnson, *Counseling from the Cross*, 92.

본래적 속성이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변화의 열매를 가져오게 한다. 고통과 시련 역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비록 힘들고 버거운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펴시며 연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성화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회개하고 신뢰하고 구하고 결단하면서 이뤄가야 한다.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협조해야 한다.”⁴⁸⁾

Stuart Scott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칭의적 요소와 성화적 요소의 균형 있는 적용을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그림 2).⁴⁹⁾



〈그림 2〉 복음의 균형 있는 적용

기독교 상담의 실제적 현장에서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는 적용된 복음 진리(딤후 2:11-14), 마음과 예배 쟁점(마 22:37-40)

48) Horton,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303.

49) Stuart Scott, “The Gospel in Balance,”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e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170.

그리고 변화의 실제적 요소(롬 12-16; 엡 4-6; 골 3-4)이다.⁵⁰⁾ 적용된 복음적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셨는지,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인격, 특권과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칭의와 성화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마음과 예배 쟁점이 뜻하는 것은 실제로 신자가 살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씨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과거, 고통, 죄와 죄책, 겸손과 교만, 회개와 믿음의 태도, 예배의 대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삼기,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섬기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등). 변화의 실제적 요소는 성화의 과정에 제기되는 주제로 거룩을 위한 영적 훈련, 옛습관을 벗고 새습관을 입기, 마음을 새롭게 하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믿음으로 열매 맺기 등을 의미한다.

균형을 맞추며 양 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신분과 훈련은 칭의와 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신분(칭의)과 함께, 훈련(성화)이 균형을 가져야 한다.⁵¹⁾ 이것이 편향적으로 강조될 때 복음으로 인한 기독교인의 삶을 온전하게 지속하는데 문제를 초래한다. 성화만 강조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의, 교만 그리고 그 반대적 성격인 자기 혐오, 행위로 동기부여되는 삶,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기울어 진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분으로 인해 받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에 칭의적 요소만 강조되고 훈련이 부족한 경우 실제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칭의를 가져오게 한 복음의 왜곡 현상까지도 있게 된다.⁵²⁾ 이미 살펴보았듯이 칭의의 선언 안에 성화에 대한 강한 하

50) Scott, “The Gospel in Balance,” 168.

51) Scott, “The Gospel in Balance,” 169.

52) Horton,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303.

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이제 하나님과 조력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일을 돕기 위해 성경 안에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유혹과 실패의 현장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가장 유용한 도구를 활용해서 전달해야 한다.

Powlison은 상담의 현장은 균형 잡힌 진리가 아니라 불균형적인 진리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한다.⁵³⁾ 보기에는 치우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정곡을 찌르고 회복을 이끌어 내며 힘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상담과 설교에 틀에 박힌 문구가 없다. 일정한 방식이 드물다. 추상적 일반화 역시 없다. “그냥 ____” 하란 식의 충고도 없다. 상황과 개인이 즉흥적이고, 유동적이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적 방식으로 개인과 상황을 처리해 갔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당신이 있는 그 곳에서 만난다고 말하는 것이 진부한 말이 아니다.⁵⁴⁾

성화의 과정을 돕는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균형 잡힌 진리의 말씀 속에서 특정한 상황과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풍성한 약속, 소망과 권면이 있고 그 중의 일부를 상담자가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내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상담자의 자원이자 숙제가 된다. 그러나 조직신학적인

53)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1,” 56.

54) Powlison,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2,” 36.

포괄적인 주제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과 칭의에 대한 중심적 메시지는 항상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⁵⁵⁾ 참다운 회복은 생명이 살아야 비로소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III. 닫는 글

기독교 상담의 토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이것이 실천적 사역 중의 하나인 상담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어떻게 견고한 기초가 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수행된 인간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넓게는 구원, 좁게는 구원의 과정 중에 설명되는 칭의와 성화에 초점을 모았다.

특히 이 두 주제의 연관관계는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에 기초한 돌봄 현장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가지 측면으로 칭의와 성화는 서로 간에 불간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했다. 같은 지향점(구원의 완성)을 가진 연속선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칭의와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믿음, 성령, 그리스도와의 연합)가 같다는 것, 그리고 성경 내에서 이와 관련된 용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독교 상담과 관련해서는 칭의 중심적 상담과 성화 중심적 상담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물론 여러 복잡한 상황과 절실한 문제를 안고 오는 내담자에게 칭의와 성화 모두를 지향하는 접

55) David Powlison, "Calvinism and Contemporary Christian Counseling," in *The Practical Calvinist*, ed. Peter A. Lillback (Great Britain: Christian Focus, 2002), 502.

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내담자의 형편에 맞게 나눠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이고, 어떤 회복 보다 선행하는 진리이고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성경적 진리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긴 여정에 길잡이와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순간마다 확인하고 내어드리며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칭의와 성화의 주제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틀과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유익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은주. “기독교인의 성화의 삶을 위한 내적 치유 도구로서의 글쓰기 치료”.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2권 3호(2007): 49-82.
- 김세윤.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2014.
- 김수연. “기독교 상담에서의 이야기 해석”.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7): 101-126.
- 김준수. “거부민감성의 이해와 성경적인 대처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65-93.
-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칼빈아카데미, 2011.
- Adams, Jay.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전동식 역. 『상담신학』. 서울: 기독교신보출판사, 1990.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1938.
- Bridges, Jerry. *The Transform Power of the Gospel*.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12.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 신복윤 · 이종성 · 한철하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Chapell, Bryan. *Holiness by Grace: Delighting in the Joy that is Our Strength*. Wheaton, IL.: Crossway, 2001.
- Cheong, Robert. “The Centrality of the Gospel.”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e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1.
- Collins, Gary R.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Ferguson, Sinclair B. “The Reformed View.” In *Christian Spirituality*.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 Fitzpatrick, Elyse M. & Dennis E. Johnson. *Counsel from the Cross*. Wheaton, IL.: Crossway, 2012.
- Ford, Gerhard O. “The Lutheran View.” In *Christian Spirituality*. Ed. Donald L. Alexand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8.

- Gaffin, Richard B. Jr.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s. David W. Hall & Peter A. Lillback.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15.
- Goldsworthy, Graeme. *Gospel-Centered Hermeneutics*. 배종열 역. 『복음주의 해석학』. 서울: CLC, 2010.
- Horton, Michael S.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윤석민 역.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 Johnson, Eric L. "Reformational Counseling: A Middle Way." *A Quarterly for Church Renewal* 13, no. 2(2004): 11-39.
- Johnson, Eric L. "Rewording the Justification/Sanctification Relation with Some Help from Speech Act Theory."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4, no.4(2011): 767-785.
- Keller, Tim. *The Reason for God: Belief in an Age of Skepticism*. New York: Dutton, 2008.
- Marshall, Walter. *The Gospel Mystery of Sanctification*. 장호준 역. 『성화의 신비』.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 McMinn, Mark R.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7.
- McMinn, Mark R. *Sin and Gra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 Moo, Douglas J. *NICNT: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Murray, John.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Collected Writing of John Murray: Select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Vol. 2.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7.
- Onesti, K. L. & M. T. BrauchJohn. "Righteousness, Righteousness of God." In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s. G. F. Hawthorne, R. P. Martin & D. G. Rei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3.
- Powlison, David. "Biblical Counse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s. John F. MacArthur, J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 Powlison, David. "Calvinism and Contemporary Christian Counseling." In *The Practical Calvinist*. Ed. Peter A. Lillback. Great Britain: Christian

Focus, 2002.

Powlison, David.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1."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1(2013): 49–66.

Powlison, David. "How does Sanctification Work?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 no. 2(2013): 35–50.

Scarzzero, Peter. *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목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서울: 두란노, 2015.

Vanhoozer, Kevin. "The Semantics of Biblical Literature." In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s. D. A. Carson & John D. Woodbridge. Leicester: IVP, 1986.

Vanhoozer, Kevin. *First Theology: God, Scripture & Hermeneutic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Williamson, G. I.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2nd ed.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2004.

【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In order to build Christian counseling upon a firm and sound foundation, this paper traces biblical themes. Exploring the order of salvation which can be said the core of the Christian view of human nature, especially it focuses 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t demonstrates the indivisible connection betwee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of a vast body of theological research to apply them to Christian counseling. First,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have the common goals which is to achieve our salvation. Second, faith, the Holy Spirit, the union with Christ all play important roles simultaneously in the whole process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ird, these two words are virtually interchangeable in the Bible. A field applic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needs to be considered not comprehensively, but as an individual due to each person's various problems and situations. However, Christian counseling has to be oriented towards sanctification making sure justification and powered by justification practicing sanctification. This approach as a absolute and valuable resource for Christian counseling influences all the spheres of Christian life. While this paper argues the need for a more balanced approach to these two themes in Christian counseling as possible, it shows that the foundational biblical truth helps Christian be conformed into Christ's image.

Key words: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Christ's image, Christian counseling, salvation